

## [목회자 모임] 유일한 길

2019. 1. 18. 이현래 목사

모든 문제가 시작할 때는 모두 아주 간단하게 시작한다. 왜냐하면 시작한 사람도 간단하고 단순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작한 것이다. 복잡하다고 생각했으면 시작을 못한다. 그런데 잘못된 생각은 가면 갈수록 복잡해져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해결이 안 된다. 잘못된 것을 고치려면 점점 문제가 간단해져야 한다. 그래야 해결이 된다. 문제가 커져서는 해결이 안 된다.

인간 문제도 마찬가지로 처음 시작은 간단하다. 창조도 간단하고 이탈도 간단하다. 창조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우리는 복잡한지 간단한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우리가 듣기는 간단하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1:1).”**는 이 말씀은 더 이상도 더 이하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간단하다. 또 이탈도 아주 간단하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창3:5).”**는 말을 듣고 이탈했다. 아주 간단하다.

하나님이 시작한 것은 점점 단순해지면서 답이 명료해지는데, 사탄이 시작한 것은 처음은 간단한 것 같은데, 갈수록 퍼지고 커져서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모를 정도로 복잡해진다.

세상문제를 보면 시작이 어디고 끝이 어딘지 모른다. 더군다나 서양 문명이 전파되면서 생각을 해도 어떤 근원을 생각하기 보다는 현상에서 답을 찾으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갈수록 더 어려워진다. 서양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과학적이다.

지금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경험한 바로는 의학계를 보면 과학적인 여러 도구나 방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조사해서 현상을 알고 있다. 그러나 해결은 안 된다. 왜냐하면 근원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벌써 20년이 되었는데 서울대학교병원 정신과에 가니까 조울증 환자에게 상담하고 말고가 없다고 했다. 지금까지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말을 들었다. 조울증 환자는 자기 몸에서 염분을 조절하지 못한다고 한다. 우리 몸은 모든 것을 항상성을 유지해야 한다. 너무 달게 먹으면 당분을 배설시키고, 너무 짜게 먹으면 염분을 배설시켜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항상 항상성을 유지하는데, 이 발란스가 깨져버리면 병이 되고 만다.

그런데 조울증 환자의 피검사를 해보면 피의 염분농도가 다르다고 한다. 그러면 조울증은 치료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20년이 지난 지금도 해결이 안 되고 있다. 왜냐하면 피를 검사해서 이런 이상이 있는지는 아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오는지는 몰라서 해결이 안 되는 것이다.

생명은 신비하다. 생명은 전부 유기적이기 때문에 서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어떤 증상이 생기려면 많은 과정을 거쳐서 증상이라는 마지막 단계로 표현이 된다. 그것을 연구해서 치료하니까 증상을 보고 치료하는 대증요법밖에 안 되는 것이다.

한 번 정신과 환자가 되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평생 병원에 다녀야 한다. 아직은 약이 없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현대 과학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인류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신학도 현대문명과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잘은 모르지만 갈수록 복잡해지는 것 같다. 신학자들이 연구한다는 것이 아주 지엽적인 것들로 연구를 한다. 그런 사람들이 수 없이 많아져서 점점 더 지엽화되고 있다. 뭘 해결하려고 또는 뭘 때문에 신학을 하려는지 모를 정도가 되었다.

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신학공부를 많이 하고 싶은데 못했다. 어제는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것에 빠져들 사람인데 하나님이 막으셨구나 생각했다. 그런데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형편이 안 돼서 못하게 되었다. 내가 저렇게 되었더라면 지금 뭘 하고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떤 생물학자에게 뭘 연구하느냐고 질문하니까 곤충 앞다리를 연구한다고 한다. 뒷다리 연구하는 사람, 앞다리 연구하는 사람, 곤충 눈을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서 세분화되어 있으니까 평생을 곤충 앞다리를 연구하다가 만다.

우리 인생문제도 그런 것 같다. 내가 신학을 다 모르지만 잠깐 들어보니까 그런 방향이었다. 그것 자체로는 말이 되는데, 인생의 문제는 더 복잡해지고 답을 찾지 못하고 해결되지 않는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원으로 돌아가야 한다. 다행히 오리엔트 문명은 모든 것이 근원에 달려있다. 신의 계시라고 해서 비과학적이다. 그런데 답은 거기에 있다. 우리같이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단순한 것을 찾아가야지 복잡한 것을 찾아가면 나 자신도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게 된다.

문제의 근원은 간단하다. 사람의 생각과 세계에 들어오면 복잡해진다. 아담은 처음에 간단하게 생각했을 것이다. 하나님 같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사람이 하나님 같으면 하나님도 편하고 좋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내가 하나님 일을 다 하고, 하나님 마음을 다 알아서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겠는가 하고 생각했다고 할 수도 있다. 꼭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할 일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는 일이 된다면 얼마나 편리하고 좋겠는가? 우주 안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 생기겠는가? 그래서 아담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복잡하게 되고 말았다. 바벨론, 바벨탑까지 가서 서로가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되었다. 곤충 앞다리 연구하는 사람과 곤충 눈을 연구하는 사람이 서로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 평생 연구하는 것이 그것뿐이라서 다른 것은 모른다. 한 가지에 몰두에서 연구한 사람들은 다른 것은 아예 모르는 사람과 마찬가지로다.

전문의를 찾아가서 물어보면 자기 분야밖에 모른다. 대학교(학부) 때는 다 배운다고 하는데, 전문의 과정을 겪어서 면허를 받고나면 다른 것은 거의 모른다. 어떤 하나만 깊이 아는 그 사람이 전문가이다. 우리처럼 다방면으로 알고 하는 사람은 박사가 아니다.

인생문제도 그렇게 되면 아무리 해도 답이 없다. 차라리 세상문제나 인간문제를 해결하려면 불교가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 아주 조리있게 사람의 문제를 해명하고 원인을 찾아서 대책을 이야기해준다.

요즘 불교의 승려들이 나와서 설교하는 것을 보면 아주 잘해서 목사 설교 듣는 것보다 낫다. 목사 설교를 들으면 답답하다.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승려들의 말을 들으면 합리적이고 누구나 수긍이 된다. 설교를 들으려면 그런 것을 듣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목사의 설교를 들어보면 대한민국이 복잡해진 것처럼 복잡해졌다. 설교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미 거듭나고 바뀌진 사람으로 생각하고 설교를 한다. 믿음을 강조하고 충성을 강조하는데, 그것은 방향이 바뀌진 사람이 할 일이다. 그냥 아담으로서 해도 안 되는 일이다.

바울이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롬3:12).”고 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왜 저런 소리를 하는가 하지만 그 말이 맞는 말이다. 다 무익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되어버렸다는 말이다.

이런 세계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온 것을 보면 칭찬벽력 같은 소리이다. “**천하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행4:12).**”는 것이다. 이 말을 무식한 사람이 해 놓으니깐 말이 많다. 세상을 몰라서 그렇지, 우주를 몰라서 그렇지, 진리를 몰라서 그렇지,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느냐고 신랄하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비웃는 사람도 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냐는 것이다. 심지어 종교다원주의가 생겼다. 유일하니 절대적이니 이런 것을 제일 싫어하는 것이 지금의 현대문명이다.

요즘 아이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제일 거부감 많은 것이 유일하거나 절대적이라는 것을 제일 싫어한다. 왜냐하면 교육을 그렇게 받기 때문이다. 학생들과 말하면 말이 안 된다. 왜 그것을 유일하다고 하는가? 왜 그것을 절대적이라고 하는가? 왜 그것을 강요하는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요즘 젊은 아이들의 말이다.

그런 곳에 가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말은 끝났다.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멸망이라는 말을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소귀에 경을 읽는 것과 같이 아예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 난감하게 되었다. 기독교가 없어지거나 재생하거나 해야지 앞으로 불교에게 밀리지 싶다. 불교에서 하는 말이 훨씬 설득력이 있다.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특별히 선택되어서 온 것이지 그냥 되는 것이 아닌 것 같다. 이성적으로 들어보면 불교의 말이 맞다. 그런데 왜 교회를 왔는가? 생각해 보면 신기하다.

나는 베드로의 말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경험으로는 그 말이 맞다. “**천하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행4:12).**”는 이 말은 너무 맞는 말이다. 왜 그런가? 문제의 근원을 가지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인간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나는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나는 별로 잘못된 것이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이 모르시겠지만 나는 말썽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모범적인 사람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나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나는 빛나간 사람이었다. 내 자리가 없는 사람이었다. 그냥 환경이 좋아서, 배운 것이 그래서, 나는 모범생이

된 것뿐이지 원래 태어나기를 다르게 태어난 것도 아니고 다 같은 인간이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 옳은 말씀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롬3:23).**”라고 한다. 무슨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는가? 옛날에 나는 그 말씀이 인정되지 않았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하니까 나도 죄를 범해서 안 된다는 말인가? 내가 그만한 죄를 지었나를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알 수 없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들리지 않고 다르게 들린다. 내게 직접적으로 해당 되는 말씀이 별로 없고 그렇다고 하더라는 식으로 들리고 남의 이야기로 들렸다.

하나님 하신 말씀이 내 이야기로 들리면 그때부터 다른 것이 생긴다. 그런데 내 이야기로 들리지 않고 남의 이야기처럼 들린다. 교회에 오는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 자기와는 관계없는 말씀으로 듣는다. 그러니 사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옛날에는 지옥을 내놓고 믿지 않으면 펄펄 끓는 불구덩이에 간다고 하니까 그것이 겁나서 교회를 다니고 했었다. 아주 순진한 때였다. 요즘에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가는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다. 그래서 전도가 안 된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젊은이들을 불러들여서 교회 테두리 안에서 살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 그런데 거기서 몇 사람이나 하나님 말씀이 들릴지는 모른다. 그렇게 어렵게 되었다.

성경을 보고 내 말로 들렸다는 것은 너무 놀라운 일이다. 전혀 이치에 안 맞는 말을 믿는 것이다. 100세에 아들을 낳았다는 말을 믿어야 될 말인가? 믿지 않아야 될 말인가? 그런데 그 말을 믿는다. 그것이 정말로 믿어진다면 이상한 일이다. 우리가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일이다. 이것이 정말로 믿어지는 것은 기적이다. 안 될 일이 됐다고 하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안 될 일이 됐다고 하는 이야기가 없다. 다 될 일이 되는 것이지 안 될 일이 되지 않는다. 인과응보이다. 그런데 성경은 안 될 일이 된 것이 너무 많다. 그것을 믿고 있다.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잘못 교조적으로 교리적으로 문자적으로 믿으면 사람이 이상하게 된다. 안 될 일을 믿고 있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이상한 사람이나는 것이다. 단순히 교리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기독교인들을 만나보면 참 좋은 사람도 많지만 정말로 이해되지 않는 사람도 많다. 왜냐하면 사고방식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사고방식만 그렇게 되니까 사람이 이상한 것이다.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

각한 책임을 느껴야 한다.

나는 40년 동안 설교라고 생각하고 말سم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왜냐하면 나는 설교할 자신이 없다. 설교를 하려면 나도 못하는 일을 하자고 해야 한다. 나도 못하면서 남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겠는가? 그래서 나는 설교를 할 수 없었다. 다행히 성경이 있어서 40년 동안 이야기를 했다. 나는 성경이 없었으면 설교를 못한다.

남이 뭐라고 하든지 우리는 성경에 있는 대로 근원으로 돌아가야 한다. 성경을 읽어보면 재미있다. 논문은 이러이러한 것을 모아서 정리해서 합리화 시킨 것이다. 논문은 마지막 끝에 가면 답이 있다. 그런데 성경은 마지막 끝에 가면 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맨 처음에 한 말이 답이다.

창세기의 답은 창세기 1장 1절에 있다. 그것이 답이다. 요한복음은 요한복음 1장이 답이다.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있다. 귀납적인 방법이 아니다. 서양학문을 하는 방법이 아니다. 성경은 학문이 아니다. 편지를 쓰는데 논문처럼 쓰는 사람이 없다. 급한 이야기부터 하고, 왜 그랬는가 하는 것은 뒤로 하는 것이지 논문 쓰는 것처럼 써서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성경은 맨 처음에 있는 말씀이 답이다. 그것만 알면 뒤에 있는 것은 읽어보지 않아도 된다.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1:1).”고 시작한다.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는지, 무엇 때문에 창조했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첫 구절만 알면 다 아는 것이다.

나는 이상한 길을 걸어왔다. 성경을 다 읽어보지도 못했고 교회에서 설교를 들을 것밖에 없는데, 걸리기가 딱 그 첫 구절이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궁지에 몰리니까 갈 데가 없고 길이 없으니까 근원적인 문제로 가게 되었다. 여유가 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여유가 없으면 근원적인 문제로 가게 된다.

내가 근원적인 문제로 돌아가게 된 것은 내가 성경을 연구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 근본적인 문제로 돌아가니까 그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길이 없으니까 사람이 목숨을 끊는 것인지도 모르지만 나는 의지력이 약해서 그것도 못했다.

거기서 배회하다가 그 말씀이 어떻게 들려왔다. ‘내가 너를 지었다.’는 말씀에 ‘나는 피조물입니다.’하는 아주 간단한 대답이었다. 그것이 내게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대답이었다. 그것이 그렇게 큰 파장으로 퍼져나갈 줄은 몰랐다. 내가 지식을 추구했다면 그것으로 끝났을 것이다. 창조론자를 지지하는 사람이 되거나

진화론을 지지하는 사람이 되거나 하는 정도밖에는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내 인생과 결부되어 있으니 그 다음이 순서대로 성경에 쓰있는 것이 보였다. 내가 ‘나는 피조물이구나.’하는 것을 아고 나니까 ‘나를 왜 지었을까?’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다. 또 ‘나는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다.

뭘 모르는 사람은 질문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 뭘 좀 아는 아이들이 질문을 하지 모르는 사람은 질문 자체가 안 된다. 시험공부 하는 아이들이 뭘 모르는지를 알아야 공부가 되지 뭘 모르는지 모르는 학생은 공부가 안 된다. 책상에만 앉아 있지 진도가 안 나간다. 선생님을 만나도 뭘 모르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물어볼 것이 없다.

설교를 들으나 성경 강해를 들으나 물어볼 것이 없다. 그 자체의 지식적인 것은 물어볼 수 있어도 자기 인생과 관계된 것은 물어볼 수 없다. 문제를 모르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는 그냥 끝없는 이야기일 뿐이다.

근원으로 돌아가면 아주 간단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존재가 하나님 같이 되려고 했다는 것이다. 인간의 문제는 아주 간단하다. 그런데 이것을 왜 고치지 못하는가? 마귀가 와서 그랬다고 한다. 그래서 알아도 못 고치고, 몰라서도 못 고친다.

서양에서는 기독교가 죄 문제를 취급하는 거의 유일한 종교이다. 불교나 유교는 죄 문제가 별로 없다. 그런데 서양에서는 죄가 기본이다. 기독교하면 죄인데 아직도 해결아 안 된다. 서양 사람들은 교회에 안 다니고 예수를 믿지 않아도 인간의 기본적인 문제가 죄라는 것을 다 안다. 기독교문화권 속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또 죄가 무엇인지를 모른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봐서 안다. 죄 죄 하지만 죄가 무엇인지 모른다. 그래서 자기가 아는 것만 죄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맨날 그것만 회개를 하는데도 고쳐지지 않는다. 회개를 했으면 고쳐져야 하는데 고쳐지지 않는다. 이것은 결국 모른다는 말이다. 시험에 나오지 않을 문제만 계속 풀고 있다는 말이다.

성경이 복잡하니까 말이 많다. 그러나 알고 보면 성경도 아주 단순하고 간단하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고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이탈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은 건져내려고 하는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 건져냈느냐는 것이다. 한 가지 문제다.

구약성경에는 국가적인 문제도 있으니 그것을 빙자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근본 목적은 아주 간단하다.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는 것과 똑같다. 아들을 잃어버렸으면 아들을 찾는 것이 유일한 문제이다.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으면 드라크마를 찾는 것이 유일한 문제이다. 다른 것은 다 부수적인 문제이다.

이렇게 보면 성경도 아주 간단하다. 바벨로 가는 사람들은 도저히 안 될 사람들이니까, 거기서 스스로 우리가 잘못했다고 돌아올 수 없는 길이다. 거기서 여론 조사하고 통계를 내서 우리가 잘못된 것이라고 돌아설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냈다. 불러낸 것이 시작이다. 제2의 창조를 위해서 우리를 불러낸 것이다. 부르심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올 수가 없다. 이 부르심에 응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다. 어떤 사람은 왜 부르심을 거절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부르심에 응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

무엇을 몰라도 부르심에 응한 사람들이 있고, 다 아는 것 같은데 부르심에 응하지 않고 자기가 해보겠다는 사람도 있다. 우리는 이유를 잘 모른다. 다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고 했으니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은 절대로 후회함이 없다. 물론 부름 받아도 택함 받은 사람도 있고, 택함 못 받은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다 부름 받음에 속해 있는 것이다.

아주 간단하다. 아브라함이 좋았다면 당연히 예수를 좋아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한 사람이다. 예수님이 말씀할 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오십 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요8:56,57).”고 비난했다. 그런데 예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는 사람이 맞다. 아브라함을 참으로 좋아하면 예수를 좋아하는 것이다.

아브라함 시대에도 구원이 있고, 예수 시대에도 구원이 있다. 아직 예수가 오지 않았어도 구원 받은 사람이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다. 왜? 아브라함을 따라 오면 구원을 받기 때문이다. 롯은 아브라함이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갔으니 멸망했다. 아브라함을 따라온 사람은 결국 예수 안으로 온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마1:1).” 그 계보가 같은 계보이다. 꼭 유대 민족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성질이 같은 계보이다. 100살에 아



들을 얻었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말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더라는 것이다. 합리적인 이야기로 하면 황당한 이야기이다. 100살에 어떻게 아들을 낳겠는가? 아브라함의 생각이 맞다.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사라의 생각이 맞다. 웃었다고 되어 있다.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잘못했으면 책망을 크게 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았다. 그 사람들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는가?

아이들이 뭘 모르고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벌을 주는가? 모르고 한 것인데 어떻게 벌을 주겠는가? 그래, 그래, 그래, 네 말이 맞다고 할 수도 있다. 모르고 하면 그렇다. 그리고 영 이야기를 해도 벽창호고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는 그래, 그래, 네 말이 맞다고 해야 한다. 기어코 알게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이 죽는다. 도저히 안 될 사람에게는 네 말이 맞다고 해야 숨을 쉬는 것이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러실 것 같다. 하다가 도저히 안 되면 그래, 그래, 네 말이 당분간 맞다고 말씀하지 않을까 싶다.

아브라함의 100세라는 말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뛰어 내렸다는 그 말이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유일하게 약속을 받았다. 네 후손을 이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에 이 가나안에 와 있는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약속했다. 이 땅을 네게 주겠다는 것이고, 네게 후사를 주어서 바다의 모래수와 같이 하늘의 별 수와 같이 많게 하겠다는 이 두 가지를 약속했다. 그런데 이것이 다 끝나버리고 말았다. 인간의 믿음까지 다 끝났다. 믿음까지도 거기서는 소용이 없다. 의롭다함을 받았던 그 믿음까지도 거기서는 소용이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사람에게 거기서 믿음이 소용이 있겠는가? 어떤 것도 소용이 없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27:46).”하고 말할 때는 할 것을 다 해봤다는 그 말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했는데 왜 나를 버리느냐는 말이 아니겠는가? 나로서는 모든 것을 다 했지만 안 된 자리가 사람에게 또 있다.

아담은 그것을 좀 이겨보려고, 그것을 좀 어떻게 해보려고 먹지 말라는 것을 먹지 않았겠는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려고,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지 않았겠는가? 우리 속에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니고 있다.  
우리 안에도 정말로 우리가 한계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다면 무엇을 못하겠는가?  
우리 안에도 만일 네가 하나님 같이 될 것이라는 말이 들어온다면 그것을 안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롬5:12).”하는 말은 아담  
한 사람인데, 그 안에 우리가 다 포함되었다는 말이다. 우리라고 안 그럴겠는가?  
거기서 믿음을 지키겠는가? 우리가 극복 못할 죽음이라는 것이 있다. 모든 것을  
다 했다고 하더라도 죽음은 극복을 못한다. 이기지 못한다.  
죽지 않게 해주겠다고 하면 무엇을 내놓지 못하겠는가? 죽지 않는 존재가 되게  
하겠다면 무엇을 못하겠는가? 나는 그것이 자신이 없다. 죽지 않는 존재가 되게  
해주겠다고 하면, 그것이 내가 믿어지면 나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을 자신이 없  
다. 나는 죽어도 안 하겠다고 할 자신이 나에게 없다. 하나님이 그것을 미리 아  
시고 나로 하여금 더 이상 범죄하지 않도록 해 주신 것 같다.

제주도에 가면 재미있는 말이 있다. 할머니들이 기도할 때 ‘내가 앞에 고를 말씀  
뒤에 하고 뒤에 고를 말씀 앞에 해도 하나님 아방께서 다 아시매.’라는 말이 있  
다. 그 말은 내가 앞에 할 말을 뒤에 하고, 뒤에 구할 말을 앞에 해도 하나님 아  
버지께서 다 아신다는 말이다. 우리가 말을 좀 잘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다. 말이 좀 잘못되어도 하나님은 사람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 아신  
다.

아브라함이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라고 했는데, 이것을 평상시에 생각하  
면 불경해도 이만저만 불경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어찌 그런 일  
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말이 되는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봐준  
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아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진심으로라면 겁낼 것이 없다. 하나님도 다 아신다.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참 말을 하고 있는지 다 아신다. 진실로 하는지 아니면 거짓으로 하는지  
다 알고 계신다.

옛날에 우리 교회에 어떤 자매가 학생 때 간증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기는 아주 간단하게 한다고 한다. 오늘 돈이 5만원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아시지요?’ 하면 묘하게 그날 5만원이 들어온단고 한다. 그 자매가 지금 아틀란  
타에 가 있다. 나는 그 자매를 생각할 때마다 늘 그 일이 생각나서 재미있어서

늘 웃는다. 믿음이 있으려면 그 정도는 있어야 된다. 대구 말로 ‘하나님 아시지 예?’ 하면 된다고 한다. 중언부언하고 여러 말 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그 자매가 그렇게 순진하다. 자매 아버지가 면장도 하셨는데, 그 면에서 유지 집안 딸이다. 대학 다닐 때 우리 모임에 왔는데, 처음에 와서 ‘아버지, 아시지예?’ 라는 그 이야기를 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려면 그 정도는 있어야 한다. 그러면 굶어죽지는 않는다.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염려할 필요가 별로 없다. 내가 혹시 말을 잘못했는가 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 다 아시는 분이 있다. 사람이 하나님만 알면 단순하고 간단하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진다.

내가 아브라함이 참 복을 받은 사람으로 알아졌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렇다. 나도 그런 사람이니까 그랬을 것이다. 나도 안 된 것이 하도 많은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내가 부름 받은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없는 자리에서 부름 받았다. 그런 은혜가 필요하다. 나한테는 할 수 없는데서 해주는 그런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좋았던 것 같다.

출출이 그런 사람이 있다. 이삭, 야곱, 모세가 알고 보면 다 똑같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나오는 다섯 여자도 다 똑같은 사람들이다. 자기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타났다. 그것은 꼭 그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한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분이 있다. 그것이 복음이고 우리 희망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이 아니다. 우리가 하는데 어떻게 복음이 되겠는가? 기도를 해서 되었다면 기도를 해서 된 것이니까 알고 보면 복음이 아니다. 기도하지 않았으면 안 될 것이 아닌가? 기도해서 됐으니까 내 공로도 상당히 크다.

그런데 그것도 안 될 사람이 되었으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것도 못할 사람이 되었으면 그때는 아무도 말을 못한다. 그것이 비합리적이거나 합리적이라는 이런 말을 할 수 없다. 죽을 사람이 살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는가!

내가 병원에서 나오니까 동네 사람들이나 나를 아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나를 인정하였다. 그들이 믿음이 있어서 인정하겠는가? 그것이 아니

다. 죽을 사람인데 살았다는 것이다. 다른 것이 이유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어려서부터 교회를 열심히 나가더니 살았다는 것이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아는 것이다.

나에게 누가 교회 나간다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요즘에는 시골에도 조금 덜 할 텐데 그때만 하더라도 시골의 조그마한 보잘 것 없는 교회에 다니면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예수쟁이, 예수쟁이 하면서 그런 교회를 다니느냐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나에게서는 누구도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 내가 교회를 안가면 오히려 왜 교회를 안 갔느냐고 더 이상하게 생각한다.

하나님이 참 이상한 분이다. 모든 사람의 입을 막아버리는 분이다. 여러 가지 이론을 다 막아버렸다. 내 인생에 다른 사람이 입 댈 것이 없도록 만들어버린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다. 그 사람이 아직도 안 죽고 살아 있느냐? 이 말도 믿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할 말이 없게 만들어 버렸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아주 단순하고 간단하다. 복잡한데 있으면 우리는 못 나온다. 거기서 헤어 나오지 못한다. 성경도 성경 지식 안에 말려버리면 헤어 나오지 못한다. 언제 66권을 다 통달하겠는가? 옛날에 어떤 사람은 1700번을 읽은 사람도 있다.

하나님은 만인이 알 수 있는 길로 오셨다. 몰래 오신 것이 아니고 다 알 수 있는 길로 우리에게 찾아오라고 하지 않고 그분이 찾아왔다. 얼마나 쉬운가?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아브라함을 불러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찾아갔는가? 아니다.

가인과 아벨은 제단을 쌓고 찾아갔는데 곁길로 나갔다. 사람이 스스로 제단을 쌓는 것 자체도 위험한 것이다. 종교가 위험한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다. 내가 정성껏 제단을 쌓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갈데아우르에서 나와서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는 아브라함을 찾아왔다. 하나님이 꼭 필요하면 찾아오신다.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찾아오신다.

예수님이 왔을 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

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요1:18).”고 말했다. 그분이 와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지 우리가 찾아간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찾으라고 하면 절대로 그런 사람을 안 찾아간다. 못 찾아간다. 찾아갈 수 없다. 그분이 찾아오니까 우리가 만난 것이다.

갈릴리에 왔으니까 그 촌놈들이 만났지 예루살렘에 왔으면 만났겠는가? 서울에 왔으면 이 촌사람들이 만났겠는가? 이적을 행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었지 아무것도 안 했으면 몰려오겠는가? 무엇을 보고 몰려오겠는가? 신분을 보고 오겠는가? 직위를 보고 오겠는가? 자기들이 못 보는 것을 보게 해주니까 왔던 것이다.

사실은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사람들을 불러낸 것이다. 서커스단이 시골에 와서 노래 부르면서 사람들을 부르듯이 예수님도 그렇게 사람들을 부르신 것이다. 그 중에서 열두 명을 택한 것이다. 인간이 먼저 한 일이 없다. 다 하나님이 시작하고 다 하나님이 했다.

지금도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우리가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지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거기에 쓰여지는 것이다. 우리는 쓰여지면 그것이 복이다. 내가 요청해서 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그것이 내게 복이다.

나를 써 주십시오. 내 입술을 지저 주십시오. 우리는 그것이 마땅하다. 제단의 숯불로 내 입술을 지지니, 이것이 마땅하다. 내 입술을 지저 놓으면 할 수 없이 그 말만 한다는 뜻이다. 그것이 맞다. 내가 어떻게 찾아가겠는가? 집을 알아야 찾아가지 어디를 찾아가겠는가? 촌놈이 서울에 올라가서 임금님을 어떻게 찾겠는가? 못 찾는다.

하나님이 보이신 길로, 하나님이 친히 왔으니까 우리에게 보라고 오신 것이다. 예수께서 자기를 보라고 이적도 행하시고, 자기를 보라고 말씀도 하시고, 자기에게 오라고 하신 것이다. 한수 가르쳐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보라고 오신 것이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여주는 꼴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꼴이었다. 너무 아이러니하다. 그때까지는 참 잘 왔는데, 거기에 와서 그렇게 되어버리니까 우리가 그때 제

자들 같았으면 심경이 어떨겠는가? 완전히 다 끝나버리고 만 것이다. 자기들 인생이 전부 끝났고, 희망이 끝났다. 모든 것이 예수 때문에 다 끝나버리고 만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비밀이 있을 줄 어떻게 알았겠는가? 이 비밀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다 좋아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다. 바벨로 가자는 말이 얼마나 그럴듯한가! “우리가 뭉치자. 힘을 합하자. 성을 높이 쌓자. 적이 못 들어오게 하자. 망대를 높이 세워서 하늘에 이르자. 그래서 우리 이름을 세상에 빛내자.” 얼마나 멋있는가? 지금 대학생들을 모으려고 하더라도 그렇게 모으면 다 모여 들 것이다. 실업자들 모아놓고 그 이야기를 하면 다 모이지 않겠는가?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하려 하면 얼마나 어렵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더 깊이 더 깊이 더 깊이 기도해야 되고, 더 깊이 우리가 알아야 되고, 더 우리가 간절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 과제 자체가 너무 어려운 과제이다. 약은 약인데 먹이기가 너무 어렵다.

약은 딱 한가지 밖에 없다. 여러 개의 약이 없다. 딱 한사람이 시작했다. 한 사람이면 된다. 딱 한 가지 문제에서 시작했다. 약도 딱 한가지 밖에 없다. 여러 가지 약 찾아봐야 소용이 없고 약은 한 가지 뿐이다. 약이 없을 때는 약이 너무 많아지고 복잡해진다.

문둥병이 약이 없을 때는 약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른다. 사람 고기를 먹으면 살아난다느니, 공동묘지에서 사람 머리에 들어있는 해골의 물을 먹으면 살아난다느니, 별소리가 다 있었다.

옛날에 문둥이 촌이 있을 때는 신동고개를 아무나 못 갔다고 한다. 왜냐하면 문둥이들이 사람을 잡아먹는다고 해서 못 갔다고 한다. 오죽하면 그런 약이 다 나오겠는가? 약이 없는 것은 약이 많다. 그런데 문둥병 치료제인 알약 하나면 치료가 된다. 너무 신기하다. DDS라는 알약이면 100% 다 낫는다.

2차 대전 때 전쟁 중인데 처칠이 폐렴에 걸려 죽게 되었는데, 그때 페니실린을 연구하고 있던 때였다. 임상실험도 못해보고 주사를 놓았는데 처칠이 살아났다. 그래서 그 후로 페니실린은 약 중의 약이 된 것이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배가 아파도 페니실린, 머리가 아파도 페니실린, 그런 때가 있었다. 약국에 가서 드링크제 찾으면 박카스를 찾았다. 다른 드링크제는 모른

다. 박카스 달라고 하면 약사가 알아서 이것도 좋은 것이라고 하면서 팔았다. 그래서 지금도 약국에서 다른 약은 다 외상인데 박카스는 외상이 없이 현금이다. 현금이 아니면 못산다. 너무 많이 팔려서다.

하나님이 내 놓은 대책도 하나뿐이다. 여러 대책을 내 놓을 것도 없고 딱 하나 뿐인데, 이 약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먹이느냐는 것이다. 이번에도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내가 제안을 했더니 왜 목사님은 맨날 똑같은 처방만 내리느냐고 한다. 왜 사람은 다른데 처방은 똑같은 것을 하느냐고 대들었다.

그래서 나는 처방이 한가지 밖에 없다고 했다. 약장사하기 쉽다. 한 가지만 팔면 되니까 파는 기술만 있으면 된다. 약사가 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 약을 다 알아야 되고,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도 다 알아야 되고, 그것도 참 복잡하다. 다 외워야 하니까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 그런데 누가 진짜 만병통치약을 개발해 버리면 아주 쉽지 않겠는가.

우리는 그 약을 만났다. 내 인생을 생각해보면 안다. 그 약이 진짜 약인지 아닌지 내가 어디서 구원을 받겠는가? 내가 어디서 내 문제가 해결이 되겠는가? 무엇을 먹고 해결이 되겠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내 안에서 증명이 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네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 했다.

다른 약은 다 소용이 없다. 예수님이 하신 좋은 말씀이 많은데, 그 좋은 말씀을 다 지켜봐도 안 된다는 말이라기보다는 그 말씀 속에 다 그 약이 들어가 있다. 말은 같은 말 같은데 그 약 속에 주성분이 들어 있다.

어차피 다른 말씀을 지키려면 주성분인 약을 빼놓고는 약이 안 된다. 다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유사약품이 너무너무 많다. 먹어도 효과가 없다. 진짜 오리지널은 한 개 밖에 없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먹일 수 있는가? 이것이 문제이다. 내가 먹고 확신이 있어야 먹일 수 있고, 내가 확신이 없으면 먹일 수가 없다. 한 가지 처방만 하는 것이 쉬울 것 같지만 쉽지 않다. 내가 확실하게 경험이 없으면 한 가지 처방만 하기 쉽지 않다.

대구에는 유명한 한의사가 하는 성서 \*\*약국이라고 있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어린 아이를 키우면서 \*\*약국에 안 가본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유명하다. 그리고 성서 일대 땅이 다 그분 땅이다. 세무서 발표 기준으로 보아도 얼마나 돈

을 많이 벌면 대구시내에서 개인 소득이 1위였다.

내가 그분을 여러 번 만나보았다. 우리 교회 아이들이 클 때, 용하다고 해서 가 보았다. 아주 그럴듯하게 설명을 하면서 약을 준다. 그래서 참 신기하다 하고 왔는데 다음번 아이를 데려가도 똑같다. 그 다음 번 아이를 데려가도 또 똑같다. 설명도 똑같고 약도 똑같고 항상 똑같다.

진료카드가 있는데 암호를 써 놓는데 똑같은 글자를 써 놓는데, 그것을 내가 알아냈다. 그 약을 알아냈는데 아이들에게는 한 가지 약이다. 어디가 아파서 왔든 지 간에 상관없이 없고 한 가지 약뿐이다. 이것을 3개월에 한 번씩 먹이라고 한다. 약값도 정말 비싸다. 한약인데 다른 약국에 비해서 배가 비싸다.

그래도 거기를 가야 한다. 안 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약을 먹고 나면 아이들이 밥을 잘 먹고 건강하다. 감기에 안 걸린다. 감기로 열이 나고 아프다고 하면 아스피린 사 먹으라고 써준다. 그분은 그 약밖에 안준다. 그래서 저렇게 한의사 하려면 누구는 못하겠는가 하고 생각했다.

우리 교회 한의사 형제들에게 내가 다 그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런데 안 된다. 그렇게 자신 있게 먹이지를 못한다. 먹이기만 하면 되는데 못 먹인다. 한 가지만 먹이고 있다면 보통 일이 아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다.

내가 한 가지 약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이다. 한 가지 약만 가지고 여러분이 약장사를 할 수 있으면 보통 사람이 아니다.

진리는 복잡한 것이 아니고 깊어질수록 단순하다고 한다. 모든 것이 다 그렇다. 그 한의사도 모든 것을 다 해본 후에 그것을 터득한 것이다. 별 것 아닌 약이고 간단하다. 그분이 설명하는 것이 그것이다.

옛날에는 아이들이 못 먹어서 병이었지만 지금 아이들은 못 먹어서 병이 나는 아이들이 없고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이 난다는 것이다. 달고 맛있는 것을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이 나는 것이니까 위장 청소를 해주어야 하는 것이다. 위를 청소해주는 약을 쓰면 애들이 대부분이 밥을 안 먹다가 밥을 마구 먹는다. 밥을 잘 먹으면 건강해진다. 건강해지면 감기 안한다.

3개월을 해보니까 약효가 3개월을 간다. 그러면 또 한 번 먹이고 일 년을 그렇게 먹이면 아이가 병이 없이 쪽 자란다. 아이들이 연령별로 병이 잘 걸리는 시기가 있다. 그때가 되면 감기도 잘하고 여러 가지 병치레를 한다. 그 해만 잘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아픈 것이 잘 없다.



진짜는 간단하다. 가짜가 복잡하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먹여만 놓으면 살아난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것을 먹은 사람들은 가만히 놔두어도 잘한다. 제대로 잘 산다. 주님을 증거 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을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밖에 자기에게 낙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 그래야 이것을 해먹기 쉽다. 고삐를 가지고 다니면서 때려가면서 일을 시키려면 쉽겠는가? 소나 말에 짐을 싣고 가다가 좀 언덕진 곳에 가면 애를 먹는다. 짐을 잔뜩 실어 놓았기 때문이다. 그런 것을 회초리를 가지고 또 때린다. 우리말에 마부는 죽으면 말 되고, 말은 죽으면 마부 된다는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른 그런 말이 있다. 그것이 다 인생고이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행 4:12).”**고 했다. 예수 외에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믿음을 갖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게 할 사람은 예수밖에 없다.

베드로의 말은 만고불변의 진리다. 영원한 진리다. 이것을 무시하고 무식한 사람이니까 그러니, 옛날 시대니까 그러니, 시대착오적이니, 요즘 시대에 그런 말이 맞겠느냐, 이러고 있으면 자기만 손해다. 옛날 사람도 밥 먹고 살고, 지금도 밥 먹고 산다. 인간이 발전했다고 밥 아닌 다른 것을 먹고 사는가? 어차피 도로 밥 먹고 산다.

베드로의 말이 너무 옳고 바울의 말도 너무 옳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롬3:23).”**는 너무 맞는 말이다. 빛나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겠는가? 위치가 다른 데 있는데 어떻게 영광을 돌리겠는가?

우리는 위치가 다른 데 있는 줄 몰랐다. 모르고 살던 사람들이다.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알던 사람들이다. 내가 선을 행하냐, 악을 행하냐, 이것만 알던 사람들이다. 이것밖에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다. 위치가 이탈되었다는 것을 몰랐다.

주님이 이 길로 인도하신 것이 나는 너무나 축복이고 감사하다. 영원히 해야 될 말이고 영원히 전해야 될 복음이다. 내가 만일 다른 길로 빠졌더라면 나는 무엇이 되었을까 하고 생각하면 아찔하다. 나는 강단에서 큰 소리 치고 살았을 것이다. 큰 소리 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안 되는데 남에게 무엇을 해서 되겠

는가? 내가 행복해야 남도 행복한 것이지 나는 행복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행복하겠는가?

복음은 복된 소식이다. 얼마나 명료하게 성경 안에 우리가 갈 길이 제시되어 있는지 하나님이 오신 길이 얼마나 명료하게 되어 있는지 모른다. 너무 쉬운 것을 놔두고 어려운 것을 찾으니까 끝도 갓도 없는 것이다.

믿음이 얼마나 좋아서 그 길고 가겠는가?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하고 물었다. **“내가 곧 길이요(요14:6).”** 너무 간단하다. 아버지께로 갔다 왔다 갔다 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 “어디로 가십니까?”라고 물었다. 그 말은 “길이 어디입니까?”하고 물은 것이다.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말이다. 그런데 “내가 곧 길이다.”라고 하셨다.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했겠는가? 역장이 무너지는 것이다. **“내가 곧 길이요(요14:6).”** 답을 들으려고 왔는데, 내가 길이라고 해버리니까 어찌하겠는가.

**“내가 곧 길이요(요14:6).”** 만민이 다 알 수 있도록 전시했다. 왜 길인가를 십자가에서 전시 해놓았다. 그 사람이 길이다. 우리가 그 사람과 연합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가! 우리가 길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그 길과 연합했으니까 길이 된 것이다. 방법이 없다. 그분 자신이 길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다른 길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르치려고 애를 썼다. 가보면 모두 다 답이 없는 길이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길이다. 예수밖에 길이 없다.

**“내가 곧 길이요(요14:6).”**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길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바로 그 말은 **“내가 곧 길이요(요14:6).”** 그 말이다.

세상에 길이 얼마나 많은가? 종교 다원주의가 나온다. 산에 올라가는데 길이 하나뿐이냐? 어디로 가든지 가서 정상에만 오르면 다 똑같은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하늘에 오르려면 그렇다.

그런데 한라산에 올라간 사람도 있고, 백두산 올라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백두산 올라간 사람이 한라산 올라간 사람을 만나겠는가? 다르다.

길은 하나뿐인데 그것을 거부하려고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빼는 것이다. 이리

빠져나가고 저리 빠져 나가는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이 모르시겠는가? 내가 봐도 알겠는데 모르시겠는가? 어찌하면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피할까 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찾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의 하수를 그것을 모르겠는가?

바둑을 하수와 두면 뻘히 보인다. 그런데 하수는 고수가 무엇을 하려고 저기에 놓는지를 전혀 모른다. 한참 두다보면 내 것은 다 죽었다. 그것도 신기하다. 인간이 알파고와 대전하는 것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해놓으신 수를 알겠는가? 그런데 그 수를 다 알도록 해놓았다.

**“본래(자고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요1:18).”** 지금까지 여러 방법으로 했다. 아브라함 때도 길을 내놓았고 이삭도 야곱도 다 해놓았지만 사람들이 못 보니까 마지막 날에 아들로 말씀하셨다. 아브라함 때 다 보았더라면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도 없다.

그것도 길이다. 100살을 먹었는데 아들을 낳았다. 그것도 길이다. 아브라함이 길이다. 그런데 그때 그것을 누가 알겠는가? 모른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창세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가? 천지창조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가? 그래도 안 되니까 더 쉽게 더 쉽게 더 쉽게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다.

하늘에 계시면 우리가 못 찾아가니까 산꼭대기로 내려오셨다. 산꼭대기에 있으면 우리가 못 올라가니까 땅으로 내려오셔서 성막에 거하셨다. 우리를 쉽게 만나게 하려고 오신 것이다.

성막에 가서 들어갈 사람도 있고 못 들어갈 사람도 있어서 율법을 주신 것이다. 율법을 통해서 만나라고 했는데, 또 안 된다. 그래서 아들을 약속하신 것이다. 그래서 아들이 왔다.

그분에게서 길을 못 찾으면 길이 없는 것이다. 없다는 말이 성경대로 말을 하면 이외에는 길이 없다. 그 말이다. 아들로 말씀했다는 말은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말이다. 아들도 길이 안 되면 누가 길이 되겠느냐는 것이다. 아들 밖에는 길이 없다. 예수밖에 길이 없다.

석가모니도 위대하고 공자도 다 위대하다. 보통 사람은 따라갈 수 없도록 위대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그런 위대한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다. 그 길이 아니다. 만인을 위하여 예비 된 길이니까 우리가 이것을 소홀히 하면 길이 없다.

세상을 생각하면 자꾸 답답해진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희망이 생기는데, 세상을 보면 저래서 되겠는가 싶다. 특별히 기독교 상태를 보면 저래서 살아남겠는가 싶다. 그래도 아직은 들을 사람이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사회선교사를 양성한다고 한다. 뭔가 했더니 2년간 공부를 시켜서 사회현장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현장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결국 사회운동이다. 사회복음주의 운동이다. 그 학교를 열었다. 데모하는 사람은 데모하는 데로 갈 것이고, 봉사하는 사람은 봉사하는 데로 가지 않겠는가.

점점 일을 복잡하게 만든다. 그러면 일이 잘 될 것 같은데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다. 모든 것 이전에 사람의 위치를 회복하고 난 다음에 될 일이지 그 이전에 될 일이 아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여러분에게 다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셔서 이 마지막 복음을 전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 여러분을 만난 것을 나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 여러분 모두는 뒤에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다. 나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

어떻게 내가 이런 분들을 만나겠는가? 더군다나 지금 생각해 보면 어디 가서 여러분 같은 분들을 만나겠는가? 우리 교회 형제들을 만난 것도 감사하지만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준비된 사람들을 내가 어디 가서 만나겠는가?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원한다. 나는 이미 이렇게 말할 때, 축복을 받았다. 이 말을 할 때, 이미 그것 자체가 감사이고 나한테 복이다.

감사합니다.